

부천시 금형산업의 공간적 연계와 노동시장 형성에 관한 연구

임 대 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석사

1. 서론

오늘날 몇몇 신흥산업지구가 첨단산업중심지로 급부상하게 되면서 혁신은 경제활동에서 핵심요소로 부각되었고, 기존의 산업집적지에 관한 연구의 흐름도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지역혁신체계 및 학습지역과 같은 지역의 혁신에 관한 논의가 그 예이다.

그러나 학습지역이론은 기존의 산업집적보다는 첨단기술산업이 집적한 신흥산업지구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학습이론은 첨단기술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기존의 제조업 분야에서도 학습과 혁신에 관한 이론은 적용될 수 있다. 유럽에서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에서 학습지역이론을 지역경제정책으로 적용하는 시도와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Morgan, 1997). 이러한 시도와 논의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혁신은 특정 지역 내 경제주체들간의 집합적 학습의 결과이다. 일정지역내 경제주체들 간에 공동문화에 기반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습이 활발히 일어날 때, 지역내 혁신의 가능성은 커진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부천시에 집적한 금형산업을 대상으로 부천시의 금형산업 집적지역에서 공간적 연계의 형성과 노동시장형성에서 지역내 인력 학습과정이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부천시 금형산업의 현황

1) 금형산업의 특성

금형은 “재료의 소성, 전연성, 유동성 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재료를 가공성형, 제품을 생산하는 도구로 ‘틀’ 또는 ‘형(型)’의 통칭”으로(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1998), 금형산업은 대량생산이 가능한 생산분야 전반에 걸쳐 요구되는 산업분야이다.

금형은 다른 제조업의 대량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분야이지만, 금형 그 자체를 제작하는 과정은 단품생산이다. 따라서, 계획 생산되는 일이 드물고 발주업체의 수요에 따라서 제작한다. 제품수주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여러 회사와 거래를 맺고 있으며, 단일 회사에서 모든 공정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관련업체와의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주문생산방식이기 때문에 유통경로는 단순하지만 수요가 불안정하다. 따라서 불안정한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대체로 소규모이다.

금형산업은 다품종 단일품 생산형태로, 제조공정의 자동화, 기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숙련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형업체로서는 숙련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해 나가느냐가 최대관건이 된다.

2) 부천시 금형산업의 현황

제조업체가 대량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곳에서는 항상 금형에 대한 수요가 있다. 이때, 금형제품은 부피와 무게가 크고 소량이며 비정기적으로 운반되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들게 되므로, 제조업체와의 근접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금형산업은 산업이 발달한 수도권 및 부산, 대구 등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산업역사가 오래된 경인지역에서 탁월하게 발달하였다.

부천시의 금형업체는 <부천시 기업체 총람>자료에 의하면 2000년 6월 30일 현재 671개¹⁾로 추산되고 있다. 부천시의 금형업체의 현황을 전국대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입지계수에서 6.6이라는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부가가치 면에서 전국대비 약 10%에 달하거나 약간 못 미치는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대비 부천시 금형산업의 비중(1998년)

항목	전국	부천	전국대비 비중
업체수(개)	1,787	190	10.6%
종사자수(명)	26,407	2,428	9.2%
매출액	2,041,433	174,553	8.6%
부가가치	1,035,694	92,981	9.0%
입지계수	-	6.6	-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자료

3. 부천시 금형산업의 집적형성과정과 공간적 연계

1) 집적지역의 형성과정 및 입지요인

(1) 집적지역의 형성과정

각종 자료와 업체 관계자들과의 면접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전문적인 금형산업은 서울의 구로, 영등포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지가 급등과, 공장부지의 협소함으로 인해 공장확장과 신규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점차적으로 서울을 벗어나서 인근 경기도 지역으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전현상은 1984년 부천공구상가(도당동 소재), 1986년 태양공구상가(내동 소재)의 설립되고, 고객업체가 되는 제조업체들이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확산되었다.

1) 이 수치는 1998년 기준 광공업통계자료에서 나타나는 190개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는 첫째, 금형업체들 중 광공업 통계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5인 미만 업체가 상당수라는 점과, 둘째, 자신들이 제작한 금형을 납품하지 않고 금형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그 생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자신들의 주업종을 어느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통계조사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서울 등지에서 이전해 온 업체들을 기반으로, 지역내에서 업체들이 자생적으로 창출되면서 부천시의 금형산업은 집적되었다. 그러나 한편, 부천지역도 지가 상승과 협소한 공장부지, 높은 임대료 등의 이유로 수도권권의 외곽지역으로 이전해 가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업체에서 이전이 많아서 부천시의 금형산업은 전반적으로 소규모 영세화되고 있다.

(2) 입지 요인

① 인력수급 : 서울 영등포, 구로 일대를 중심으로 발달한 금형업체들이 이전하면서 부천지역을 좋은 입주장소로 택하는 데에는 회사내 금형기술노동자들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주지역이라는 점이 중요했다. 부천은 서울의 영등포, 구로 일대와 인접한 도시이면서 교통이 좋기 때문에 인력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이후, 이 지역에 금형업체들이 늘어나고 이 지역의 금형기술인력도 풍부해지면서 이제는 부천시에 독자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

② 경인지역에서의 중간적 위치 : 부천은 경인지역의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업체의 구매·판매 연계가 좋다. 판매연계에서는 금형 주문이 많은 대기업들이 인천의 남동공단, 안산의 시화·반월공단, 오산, 평택 등지의 수도권 외곽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구매연계에서는 부천시의 부천공구상가, 태양공구상가 등의 공구상가와, 서울의 구로공구상가 등과의 접근성이 좋다.

③ 타금형업체 및 외주가공업체와의 연계 : 주문생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금형업의 특성상 금형업체들은 대체로 고객업체와 거래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주문량이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금형업체들에게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다. 금형은 단기간에 제작되기 때문에 금형업체들은 필요한 경우 외주를 주고받기 위해서 근접하여 분포할 필요성이 있다. 금형의 중간 공정을 전문으로 하는 임가공 업체들의 경우에서도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금형업체와의 공간적 근접성이 요구된다.

2) 부천시 금형산업의 공간적 연계

(1) 물자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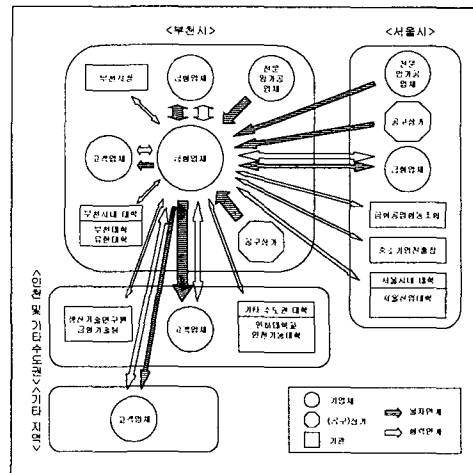
금형업체들에게 부천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인근에 분포하고 있는 원자재 및 부품 시장과의 연계면에서, 그리고 부천, 인천 등 경인지역과 안산, 오산 등의 수도권 외곽지역에 많이 있는 고객업체들과의 연계면에서 모두 좋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업체들은 구매의 대부분은 부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판매의 경우에는 부천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간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금형업체들의 고객업체들인 대규모 제조업체들이 수도권 외곽에 주로 입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타금형업체들, 그리고 금형 전문임가공업체들과의 외주 연계도 지역 내에서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협력 연계

먼저, 평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업체 및 기관에 대한 질문에서 부천시내 금형관련

업체(69.6%)와 부천시외의 금형관련 업체(47.8%)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내외를 막론하고 금형업체간의 협력관계가 가장 잘 발달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항목은 고객업체로, 지역과 관련없이 32.6%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 기업체와의 협력연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부천시청 및 구청, 대학 및 연구소, 협회 및 조합 등 기관과의 협력연계는 미미하다.

구체적인 협력내용을 살펴보면, 부천내 금형업체들간에는 인력채용 협력연계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부천외의 금형업체들과는 시장정보나 기술정보 협력연계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객업체들로부터도 시장정보나 기술정보를 많이 얻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동기술개발 협력연계도 나타나고 있다.



4. 지역 노동시장의 형성과 인력학습과정

1) 지역 노동시장의 형성

금형업은 작업장에서 기술학습이 일어나기 때문에(know-how), 인력은 업체 내에서 양성된다. 설문조사 결과 새로 들어온 인력이 금형산업의 일을 배우는 데에는 평균 3.24년의 교육기간을 필요로 하며, 그 교육은 설문에 응답한 모든 업체들이 회사 내에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이 이러한 기술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만큼의 기술을 갖고 있는냐 하는 지식(know-who)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기업끼리의 정보교환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설문조사 결과, 인력을 채용할 때 중요한 점에 대한 질문에서 금형업체에서의 근무년수(30.2%), 주위의 평판이나 관계(43.4%) 등 비객관적인 지표를 중시하고 있다.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에서도 주위 사람들의 소개(98.1%)와 직원들끼리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스카우트(69.2%) 등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금형기술인력들이 타업종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적다. 설문결과, 퇴사 후 타업종으로의 진출 비율은 이직과 창업의 경우를 모두 합쳐서 10.8%에 불과하다. 업계 내 유동인력들도 부천시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5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까지 모두 포함하면 이 비율은 82.2%가 된다. 이는 좁게는 부천지역, 넓게는 수도권 지역의 금형인력은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창업면에서도, 설문결과 창업자가 창업 이전에 금형업체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은 90.9%이었고, 이들의 평균 현장경력은 13.4년으로 나타났다.

2) 인력의 학습과정

그렇다면, 부천지역의 금형기술인력들이 지역내에 남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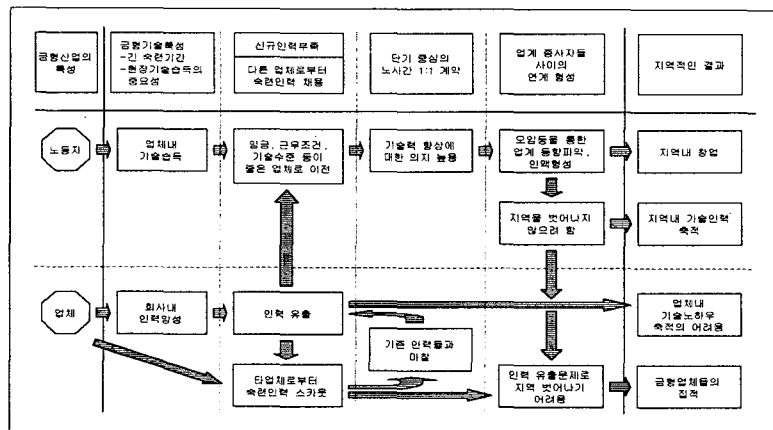
금형공업에서의 노사관계는 기술자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속임급 임금 체계로 인하

여, 노동자 집단이 형성되지 못하고 노동자 개인과 회사와의 1:1 관계가 형성된다(김찬기, 1991). 따라서 노동자들은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부족한 반면, 자신의 연봉조건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의 기술능력을 높이는 등 개인적인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노사관계는 노동자들이 연봉이나 근무조건에 따라 쉽게 이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직장 이동은 노동자들에게는 연봉 인상 이외에 기술학습의 기회로 작용한다. 새로운 기술을 업체들로부터 주로 얻는 금형업의 특성상 노동자들의 기술학습 열의는 주로 기술력이 좋은 업체나 다른 금형분야의 업체로 옮기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직은 노동자들에게는 다양한 경력을 쌓는 기회가 된다. 금형인력이 타지역으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업계 종사자들끼리의 연계와 이들 사이에서 나오는 정보 때문이다. 이런 연계를 벗어나고서는 기술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인력이나 회사정보를 얻기도 어려워진다.

높은 이직율은 인력들에게는 학습의욕을 높이고 학습효과를 높이고 있지만, 업체로서는 기술축적이 어려워지는 요소로 작용한다.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업체들은 부족한인원을 타업체에서 채용하려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업체와의 관계에 힘쓰게 되는 반면, 기관과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약한 기관과의 연계는 형식지(codified knowledge)의 부족을 야기하고, 폭넓은 학습능력을 저해한다. 지역의 혁신능력이 학습능력에서 비롯된다면, 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한 부천 금형산업은 혁신능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어렵게 한다.



5. 결론

부천시 금형업체의 집적과정과 연계형성에서 인력의 기술학습은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부천시의 제조업 분야 업체들은 점차적으로 수도권 외곽지역으로 이진해 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금까지 형성된 혁신잠재력과 연계들이 해체될 수 있다. 이를 지속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하부구조와 함께 지역의 혁신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부천시 금형업체들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학습과 노동자들의 높은 학습의욕을 최대한 이용하여 이를 제도권 학습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